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26)

관기소사(觀其所使)

그가 부리는 것을 보라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역사에서 제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할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어느 군주를 가리켜서 성군(聖君)으로 부르고 어떤 군주를 보고는 폭군(暴君)이라고 하며 또는 무능하다고 하거나 혹은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 군주가 있다. 어디 군주뿐이라! 한 기관의 책임자만 되더라도 말단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유능하다거나, 무능하다거나 혹은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설혹 혹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마음먹고 나쁜 짓을 하거나 일을 곤두박질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나쁘거나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경우라고 하여도 본인은 그것이 잘 하는 줄 알고 한 경우가 허다하다. 또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그러한 예는 전한 시대에 원제(元帝)와 경방(京房)이 대화하는 내용에 재미있게 나타나 있다. 원제는 경방을 가까이 하여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경방은 당시에 주역(周易)을 많이 연구하였고,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잘 아는 것으로 유명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황제인 원제는 중서령(中書令) 석현(石顯)과 그의 친구인 상서령(尙書令) 오록충종이 아첨하는 말만 듣고 그들이 정말로 일을 잘 하는 줄 알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거의 맡겨 두고 있는 처지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익(私益)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멋대로 정치를 하였다. 그러자 나라는 위태로워졌고, 이를 보다 못한 경방이 원제와 대화를 나누었다.

먼저 경방이 원제에게 말을 건넸다. “유왕(幽王)과 여왕(厲王) 같은 군주는 어찌하여 위태로워졌으며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周)나라의 유왕과 여왕은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였던 군주였다는 것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원제는 바로 대답하였다. “임금이 밝지 못하였으니 일을 맡은 사람은 간사해졌다.” 유왕과 여왕이 현명하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을 채용하였고, 그들

에게 일을 맡겨서 그리 되었다고 대답했다. 정답이다.

경방이 다시 물었다. “그들이 간사하다는 것을 알고서 채용하였겠습니까? 그들을 현명하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원제는 망설임 없이 정답을 말하였다. “그들을 현명하다고 생각하였겠지.” 경방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그들이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원제가 말하였다. “그 시대가 어지러웠고, 임금이 위태로워졌으니 그것으로 아는 것이요.”이번에도 원제는 이번에도 정답을 말하였다. 여왕이나 유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에 서슴없이 대답한 것이다.

경방은 다시 물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을 임용하면 반드시 잘 다스려질 것이고, 불초한 사람을 임용하면 반드시 혼란하게 되는 것은 필연의 도리이겠군요. 그런데 유왕과 여왕은 어찌하여 달리 현명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갑자기 불초한 사람을 임용하여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원제는 대답하였다. “난세를 만난 군주들은 각기 그의 신하를 현명하다고 할 것이요. 모두가 이 이치를 깨달았다면 천하가 어찌 위태로워지고 망하는 군주가 있었겠소?” 이것도 정답이다. 난세의 군주는 자기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간사한데도 거꾸로 현명하다고 잘 못 판단하였고, 그래서 난세가 닥쳤으니, 이를 제때 알아차렸다면 망하는 나라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군주의 어리석음을 잘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원제의 대답을 들어 보면 원제는 역사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아 보인다.

여기에 이르자 경방이 말하였다. “제의 환공(桓公)과 진(秦)의 2세 황제도 또한 이러한 군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비난하며 비웃었겠지요. 그렇다면 수조(颶)와 조고(趙高)를 임용하여 정치는 날로 어지러워지고 도적은 산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 어찌하여 유왕과 여왕의 사실로 이것을 접쳐서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경방은 이번에는 유왕과 여왕의 실패를 잘 알고 있었던 그 후인 춘추시대의 제환공과 진나라시대의 2세 황제인 호해의 경

우를 들고 나왔다. 제환공과 호해가 유왕과 여왕이 실패한 것을 보며 그들이 어리석었음을 비웃었을 것이니 그들은 다시는 유왕이나 여왕 같은 잘 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조와 조고 같은 간사한 사람을 채용하여 실패한 것을 가지고 그 이유를 묻은 것이다.

원제는 대답하였다. “오직 도(道)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지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알 수 있을 뿐이요.” 제환공과 호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道理)를 몰라서 실패의 전철(前轍)을 밟은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황제인 원제의 대답을 여기까지 끌어냈다면, 경방은 지금 당시는 실패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를 묻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경방은 단도직입적으로 “폐하께서 보시기에 지금은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원제는 말하였다. “역시 지금이 혼란하게 되었을 뿐인데 오히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원제는 현실이 혼란스러움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경방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끌고 왔는지 묻은 것이다. 말 끝은 알아듣는 셈이었다.

이에 경방이 말하였다. “지금 맡겨서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국 석현과 오록충종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혼란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까지 대화를 이어 왔으니 원제는 자기가 사람을 잘 못 채용한 것을 알아차려야 했다. 그러나 대답은 전혀 엉뚱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전시대보다는 좋고, 또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오.”

지금까지의 대화로 보아 원제는 자기가 사람을 잘 못 뽑은 것을 인정하고 고칠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자기가 인사(人事)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치지도 않았다. 그러하였으니 원제 이후에 한(漢) 왕조는 급격하게 하향 길로 접어 그가 죽고 40년 뒤에는 왕망(王莽)에게 소리소식도 없이 왕조를 고스란히 바쳤다. 이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漢) 왕조를 빼앗은 왕망을 찬탈자라고 나무라고 있지만 과연 한마디로 왕망을 매도만 할 수 있었는가?

원제는 역사를 잘 공부하였다. 왜 나라가 망하거나 혼란스럽게 되었는지 훤히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자기가 한 행동에 대입(代入)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정말 자기가 잘 못하였다는 것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알 수가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잘 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는 잘 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못난이가 틀림없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당대(唐代)에도 있었다. 측천무후(則天武后)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이때에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조정에서는 사방으로 순찰하는 사

람을 내려 보내어 잘 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으라고 하였다. 잘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사방으로 순찰을 떠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 것이냐가 문제였다.

제대로 된 사람이 사방을 순찰하게 되면 지방관의 잘 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자양(陳子昂)이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렸다. 지방에 내려 보내는 사자(使者), 즉 일 할 사람이 제대로 되어야 하니 사자(使者)를 잘 파악하여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진자양은 그 방법을 말한다. ‘바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다녀간 곳을 관찰하십시오.’고 충언하였다.

이어서 진자양은 계속하여 “수의 양제(湯帝)는 천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도리어 탐욕스럽고 아침하는 신하들을 믿어서 이적(夷狄)의 이익을 거두기를 바라다가 마침내 멸망하였습니다. 그것이 은감(殷鑑)이니 어찌 큰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까?”라고 끝을 맺었다. 수나라가 망한 원인도 신하를 잘 못 뽑아서 망하였으니 그 역사의 거울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한 것이다.

역사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이 폭군이 되었는지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다못해 바보 같은 원제도 알았고, 폭군 수양제도 알았다. 그리고 당나라 때의 측천무후도 알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역사고, 그 역사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가 보다. 그 때문에 자신도 불행해지고 왕조는 어려웠으며 백성들은 더더욱 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다.

요즘을 정말로 나라가 시끄럽다. 아우성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아우성을 들으면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떤 것은 전 정권 탓이고, 어떤 것은 야당 탓이며, 어떤 것은 겹 투자하는 사람 탓이라는 것이다. 어떤 것은 재벌 때문이고 어떤 것은 검찰 탓이라고도 한다. 탓을 말하기로 한다면 어디 탓할 것이 그것뿐이겠는가? 언제나 문제는 있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를 풀겠다고 정치를 맡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남 탓이라니, 그것도 모르고 일을 맡았다는 말인가?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스스로의 무능에 돌려야 옳다. 이제라도 스스로 잘 못하는 것을 돌아볼 일이다. 경방이 원제를 붙잡고 조곤 조곤 가르쳐 주었지만 맨 마지막에 원제는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낫다.’고 얼버무렸다. 정말 나아졌을까? 결과적으로 원제이후로 한(漢) 왕조는 망해 갔다. 다시 한 번 아우성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을 살펴 볼 일이다.

능곡회 창립34주년 기념 및 복회 개최



권기형 능곡회장

안동능곡회 창립34주년 기념 및 복회(伏會)가 8월 8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남후면 암산1길 암산유원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안동지방은 2주째 계속되는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능곡회원 및 부인회원, 능우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능곡회 명예회원인 권순태 국립 안동대 총장을 비롯하여 권오을 전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 권영준 전 안동대 교수, 권기창 안동대 교수, 권오의 대중회 사무부총장, 권영건 능우회 초대회장, 권영택 정조공파 종회장,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원수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권순태 안동대 총장과 김형동 국회의원은 바쁜 일정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행사장을 떠났다.

권오을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시조묘소 망배, 내빈소개, 능우회원과 능곡회원 간 상응례를 하였다. 상응례가 끝나자 권기형 능곡회장, 권태영 능곡회 자문위원, 권영건 능우회 초대회장, 권영준 능우회 2대 회장, 권수환 능우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단상앞으로 나와서 능곡회 창립 34주년을 축하하고 아울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케이크 절단식을 가졌다. 또 이 자리에서 권기형 회장은 권수환 상임부회장에게 오늘의 능곡회가 있기까지 도움을 준 모든 능우회원을 대표해서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권기형 능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6년 8월 8일 안동지역 청, 장

년 35명이 주축이되어 창립한 능곡회가 벌써 34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다.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능곡회와 능우회의 위상과 이념을 되새기고 더욱더 돈독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희태 능우회장을 대신해서 권수환 상임부회장은 축하사에서 “집행부가 행사 준비를 하는데 고생이 많았으며 오늘 즐거운 시간을 다함께 보내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권광택 도의원 부인, 권영길 연수원장, 권오을 전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대 교수 등 4명이 차례로 축사를 했다. 이어 능우회 2대 회장을 지낸 권영준 박사(전 국립 안동대 교수)는 능곡회 역사를 소개하면서 “송조이념사상으로 물려진 능곡회원 130여명은 회원 친목은 물론,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의 모태(母胎)가 되어 지금까지도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동권씨는 단일 성씨로 전국에서 열한 번째이고 인원수는 70여만 명이며 앞으로 중국, 일본, 미국, 북한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안동권씨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족구대회, 제기차기, 훌라후프, 신발던지기 등 재미있는 종목으로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으나 장맛비로 모든 종목을 취소하고 노래자랑으로 대체했다. 점심은 맛있는 선지국밥을 선정했으며 닭고기, 닭발수육, 수박, 참외, 포도, 소주, 맥주, 음료수 등 푸짐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끼리 정담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권기형 회장과 권오성 상임부회장은 능곡회원에게 태월 1장씩, 능우회원들께 태월 1장씩과 양말 두 켤레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진>

2020年 8 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안동권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족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종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름순)(단위: 원)

권동술(합천) 30,000	권영진(대구 동구) 30,000	권우현(진주)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봉호(대구) 30,000	권영채(예천) 30,000	권종모(영주) 30,000	정조공파(2부) 60,000
권승웅(대전) 30,000	권오진(홍성) 30,000	권창수(서천) 30,000	
권영구(제천) 30,000	권웅은(안산) 30,000	권혁무(강릉) 30,000	
권영우(경기하남) 30,000	권용태(서울광진) 30,000	권홍근(합천) 30,000	
■ 납부자 총 15명 / 지사1, 기간: 7.30~8.27			총 510,000원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 2020년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9월호와 함께 1차 발송하였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동명이인 등으로 납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오니 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과 거주지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중회) 국민 033237-04-006941(안동권씨 대중회)
-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중회